

토니 모리슨의 『재즈』에 나타난 기타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부작용

이 영 철
(전주대학교)

Lee, Young Cheol. "Adverse Effects of Other Mothers' Child-Rearing in Toni Morrison's *Jazz*."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0.1 (2024): 77-96. This study explores adverse effects of non-parental figures' or other mothers' - as I called them in this article - child-rearing methods in Toni Morrison's *Jazz*. Throughout the novel, Morrison critiques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True Belle and Alice Manfred, highlighting their ineffectiveness. Similar to some other African American female characters in the text, they are depicted as 'unarmed women' who believe that silence and obedience are the best strategies to survive racial-sexual oppression and violence. They remain haunted by the enduring legacies of slavery and its consequences. Therefore, they compel their grandchild and niece to accept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More specifically, True Belle inhibits Violet's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black femininity by instilling a stereotypical, sexualized, and racialized image of Golden Gray, a white-skinned character, into her adolescent granddaughter Violet's mind. Alice also hinders her adolescent niece Dorcas from growing up to be an autonomous black woman by compelling her to accept the harsh realities of racism and sexism. (Jeonju University)

Key Words: Toni Morrison, *Jazz*, Other mother, Black family, Black femininity, Black females

I. 들어가며

대가족구조 중심의 흑인 가정은 노예제도 시절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이후에도 지속된 인종적·경제적·정치적 불평등과 고립을 강요당하며 붕괴를 맞이한다.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노예제도 기간에 백인 주인의 노동력 착취와 고립화로 인해, 그리고 노예해방 이후 1865년부터 1925년까지 도시로의 이주와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 가족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Staples 18). 이와 관련, 특히 핵가족 구조로의 변화 요구를 맞이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대가족 구조의 붕괴로 인한 혼란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교육 빈곤, 그리고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초래된 가족관계의 붕괴, 모계 중심 가정의 증가, 그리고 혼외 자녀 출산 등”(Genovese 27) 가정적·사회적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적 부담에 노출된다.

흑인 가정의 붕괴는 편부 가정 또는 양부모 부재 가정의 어머니 부재를 메워줄 ‘기타 어머니’의 등장으로 초래한다.¹ 기타 어머니는 대가족 제도의 공동체적 의식을 기반으로 친족 범주 내에서 할머니, 고모, 이모, 또는 기타 여성 친족, 그리고 친족 밖의 범주에서 공동체의 여성 구성원이 친어머니의 부재 또는 활동 불능으로 인해 초래된 자녀 양육과 보호의 공백을 직간접적으로 메워 줄 경우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편부 흑인 가정 또는 양부모 부재 흑인 가정의 어머니 부재를 메워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타 어머니는 할머니이다. 아프리카계 할머니는 대가족 구조의 붕괴 이후에도 가정 내의 원로지위를 유지하며 세대 간의 유연한 매개를 통해 가정의 조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손자들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손자들과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Salem, Zimmerman, and Notaro 333). 특히, 편부 흑인 가정 또는 양부모 부재 흑인 가정에서 아프리카계 할머니는 가족구조와 세대적 결속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계 할머니는 흑인 가정의 전통적인 요구사항들 “세대 간의 교류, 합의 절차, 지원, 그리고 의무”(Kivett 166)를 수행하며, 조손가정의 기타 어머니로서 세대 간의 유연한 소통과 결속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기타 어머니로서 할머니의 역할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할머니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접근은 대가족 제도의 연장자 우대의식, 서열의식, 그

¹ 미국의 백인 중심사회는 노예제도 시절에 흑인 여성들의 육체적인 자기방어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Gallego 186), 노예해방 이후 1930년대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아프리카계 여성들을 자산으로 간주했다”(Terborg-Penn 34-35).

리고 자녀들의 순응적 태도에 바탕을 둔 접근이라는 점에서 대가족 제도의 파괴 이후 도입된 핵가족 시대의 변화된 역할을 반영한 접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름 아닌, 할머니의 경우 경제적 빈곤, 고등교육의 부재, 그리고 노쇠한 육체 등과 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할머니들은 기타 어머니로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감, 상실감, 죄의식, 당혹감, 그리고 분노와 반감을 경험하며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관계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Gibson 343). 따라서 할머니들이 겪는 이 같은 경험들은 손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세대 간의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쌓아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음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율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재즈』(Jazz)는 다양한 비평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운 재즈 시대를 배경으로 흑인 가정의 붕괴와 부모를 잃은 조손가정 자녀들의 부자연스러운 성장 과정과 결과를 추적한 소설이다. 제니퍼 앤드류스(Jennifer Andrews)와 캐슬린 모건(Kathleen Morgan)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와 현실에 비취 각각 “상실의 유산을 추적한 소설”(87), 그리고 “백인지배사회가 백인들과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적·지속적 관계에 의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추적한 소설”(221)이라고 평가하며, 엘리자베스 캐논(Elizabeth Cannon)은 작중 배경인 재즈 시대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기 작중인물의 모습에 비취 “성적 욕망을 탐구한 소설”(235), 그리고 김숙희(Kim Sook-he)는 흑인 대이동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에 비취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자화상들을 다룬 소설”(125)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앤드류스, 모건, 캐논, 그리고 김숙희의 견해는 『재즈』속에 내재된 흑인 가정과 자녀양육에 어두운 역사적·현실적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을 말해준과 동시에, 흑인 가정의 붕괴로 인한 조손가정의 자녀 양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재즈』에서 모리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낙관적 미래를 제시한 할렘 르네상스가 궁극적으로 남긴 비관적 현실을 흑인 가정의 붕괴와 흑인 여성의 불완전한 자아형성에 비취 재현한다. 낸시 페터슨(Nancy Peterson)이 “토니 모리슨의 『재즈』는 흑인 여성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목격하기 위해 할렘 르네상스의 공

공적·기념비적 역사를 비켜 가도록 요구한다”(100)고 언급하듯, 모리슨이 이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할렘 르네상스의 낙관적 비전의 음지에 자리한 흑인 여성들의 고립과 불완전한 삶이다. 즉 ‘뉴 니그로’ 시대란 기치 아래 진행된 할렘 르네상스는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가 “불꽃처럼 찬란한 내일”(39), 그리고 알레인 로크(Alaine Locke)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것”(헬블링 87 재인용)이라고 극찬하듯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문예부흥운동이다. 하지만 휴즈가 개선되지 않는 인종적 불평등의 벽 앞에서 좌절한 채 공산당에 가입하고, 로크가 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미래의 긍정적 비전을 철회했듯이(헬블링 89), 할렘 르네상스는 인종적 주체성과 자유와 평등을 갈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이와 관련 할렘 르네상스에 대한 모리슨의 시각 역시 휴즈와 로크의 현실 비판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말해주듯, 모리슨이 『재즈』에서 형상화한 흑인 가정들은 할렘 르네상스 시대의 변화와 충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손가정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한 가정들이다. 모리슨은 흑인 가정들의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며 백인 중심사회의 억압과 폭력과 모순에 대해 침묵과 복종과 도피방식만 강조한 기타 어머니들의 폐쇄적·수동적 자녀 양육방식이 자녀들의 자아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비판적 시각에 비춰 추적한다.

본 연구는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리슨의 『재즈』의 기타 어머니들 트루벨(True Belle)과 앨리스 맨프레드(Alice Manfred)가 자녀 양육과정에서 드러낸 부작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시대 여성들인 트루벨과 앨리스의 흑인 여성성이 신세대인 손녀들인 바이올릿(Violet)과 도르카스 맨프레드(Dorcac Manfred)의 자아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추적한다.

II. 노예제도와 그 후유증에 대한 무비판적 내재화의 강요

1926년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재즈』에서 모리슨은 두 세대의 기타 어머니와 손녀의 관계를 제시하며, 기타 어머니로서의 할머니의 자녀양육에 나

타난 부작용을 추적한다. 첫 세대는 트루벨과 바이올릿이며, 둘째 세대는 엘리스와 도르카스이다. 바이올릿의 외할머니인 트루벨은 백인 가정의 가정부 출신으로, 가정부 생활의 경험을 손녀인 바이올릿에게 강요하고, 도르카스의 고모할머니인 엘리스 역시 백인 가정의 가정부 출신으로, 인종적·성적 억압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온 경험을 도르카스에게 강요한다.

트루벨과 엘리스는 백인 집 가정부 생활과 백인 중심사회의 억압적·폭력적 규범을 침묵 속에 내면화한 여성들이란 점에서 이 소설의 전반부에서 모리슨이 소개한 1920년대의 “무장한 흑인 여성들”(the armed black ones)(*Jazz* 78)²과 반대되는 여성들이다. 무장한 흑인 여성은 경제적·사회적 빈곤과 고립 속에서도 가부장적 남성의 폭력에 분노하며 치명적인 반격을 실천하는 저항적·전복적인 흑인 여성성의 표상이다.³ 즉 그들은 인종적·성적 억압과 폭력에 ‘침묵’으로 일관한 순종적·타율적인 ‘무장하지 않은 여성’과 달리, 자신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자율적·능동적 여성이며(Terborg-Penn 42), “억압에 대한 저항수단”(Putman 25)으로 어떠한 폭력도 불사하는 흑인 여성이다. 이와 관련, 트루벨과 엘리스는 폭력에 침묵하고 규범을 내면화하는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침묵과 내면화를 소녀들에게 강요하는 기타 어머니들이라는 점에서 모리슨의 비판대상인 ‘무장하지 않은 여성’ 즉 “무장한 남성들에게 빌붙어서 야양을 띠는”(Jazz 78) 여성, 그리고 “자체 방어력을 상실한 채 제정신이 아니거나 죽은”(Jazz 77-78) 여성과 가깝다.

먼저, 트루벨은 딸인 로즈 디어(Rose Dear)가 다섯 명의 어린 딸들(4세부터 14세)과 빈곤만 남긴 채 우물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귀향한다. 트루벨이 딸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들은 시점은 볼티모어(Baltimore)에서 베라 루이즈(Vera Louise)의 가정부로 살아갈 때이다. 트루벨은 애초에 베스퍼(Vesper)의 백인 가정에서 가정부 생활을 하지만, 백인 가정의 딸 베라가 흑인 노예와의 사이에서 혼외자 골든 그레이(Golden Gray)를

² 이후 해당 텍스트에서 인용 시 (*Jazz* 쪽수)의 형식으로 표기함.

³ 모리슨의 흑인 여성성은 흑인 여성의 정체성 실현을 위한 토대다(Cannon 239). 이를 말해주듯 모리슨은 “소설쓰기를 통해 성장기 아프리카계 소녀들이 인종, 피부색,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이해를 구축해가는 방식을 보여준다”(Rahmani 63).

출산했다는 이유로 쫓겨날 때 베라와 함께 볼티모어로 떠난다. 이때 트루벨은 백인 주인을 위해 8세의 로즈와 10세의 마리(Mary)를 친척에게 맡긴 채 남편마저 버리고 떠날 정도로 충성스러운 가정부다. 하지만 1888년에 필라델피아(Philadelphia)로 이주하는 이웃으로부터 로즈의 사망소식을 접했을 때, 트루벨은 22년 동안의 가정부 생활을 즉각 청산하고, 베스퍼로 돌아와 딸의 자녀들을 11년 동안 양육하는 아프리카계 어머니의 강한 모성본능을 보여준다.

기타 어머니 트루벨의 삶은 백인 가정의 가정부로서 백인 주인을 향한 충성과 충성의 대가로 받은 칭찬, 그리고 백인 주인의 믿음에 대한 자긍심에 바탕을 둔 모범적 삶이다. 노예제도와 재건시대의 연대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온 트루벨은 가정부 생활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와 책임감으로 정원 가꾸기와 농사, 그리고 손녀들 돌보기 등 가정의 대소사를 원활하게 꾸려나가기만, 가정부 시절의 경험들을 바이올렛에게 들려주며 백인 주인 여성과 백인 남성에 대한 막연한 상상과 이미지를 강제로 주입시킴으로써 흑인 여성성의 습득과 체화를 방해한다. 즉 부유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베라가 아프리카계 노예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날 때 자신을 가정부로 선택해준 것과 관련, 트루벨은 백인 여성 주인이 자신을 믿음직하고 유능한 아프리카계 가정부로 인정해준 것이며, 자신도 이에 보답하기 위해 두 딸과 남편까지 버리고 기꺼이 떠나신 것처럼 말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인종적 정체성과 자존감에 반하는 트루벨의 이 같은 모순적 의식과 행동은 베라의 골든 그레이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성성의 대명사처럼 형상화할 때 더욱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트루벨은 또한 골든 그레이의 ‘돌봄이’로서 체득한 미적 경험과 가치관을 바이올렛에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려줌으로써 바이올렛을 백인 남성의 육체적 미를 추종하는 백인적 흑인 여성으로 만든다. 트루벨은 바이올렛에게 골든 그레이의 유년 시절에서 성인 시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즐거운 기억들, 즉 목욕시킬 때 이야기, 속옷 이야기, 욕조 모양, 신사다운 품위, 청년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가서 죽이려 했지만, 운이 나빠 죽이지 못하고 돌아온 이야기(Jazz 138-39)를 바이올렛에게 들려준다. 특히, 백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옅은 피부색을 가진 골든 그레이(Andrews 94)의 황금색 머릿결에 대한 트루벨의 이야기는, 작중 화자가

“바이올렛이 미용사가 된 까닭은 몇 년 동안 내내 트루벨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Jazz 17)이라고 밝히듯, 바이올렛에게 백인 남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도록 만들고, 훗날 직업조차 미용사가 되게 만든다. 이와 관련, 장례식 난동 이후 일상적 평정을 되찾은 바이올렛은 골든 그레이에 대해 “비밀 첩보원처럼 마음속에 은밀히 살고 있었어”(Jazz 208)라고 고백하며, “지금에 이르러 비로써 그 사실을 깨달았어”(Jazz 208)라고 밝힌다.

가정부 생활의 기억으로 점철된 트루벨의 자녀 양육방식은 가난으로 인해 어머니가 당해야 했던 폭력과 어머니의 자살을 직접 목격한 성장기 바이올렛의 충격적 경험을 해소해주지 못한다. 12세의 바이올렛이 살던 집에서 쫓겨날 당시에 어머니가 당한 폭력과 어머니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것은 사회적·경제적·성적 약자가 직면해야 하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해준다. 즉 강제절거를 위해 집안으로 들어다친 폭력배들이 커피를 마시고 난 뒤 하얀 빈 컵을 들고 있던 어머니 앞에서 식탁을 뒤엎어버리며 어머니를 쓰러트린 것은 사회적·경제적·성적 약자에 대한 무단폭력으로, 이를 목격한 바이올렛에게 지배적 권력을 향해 어떠한 저항적·전복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약자의 규범을 각인시켜 준다. 그리고 우물 속에 몸을 던진 어머니의 자살 장면을 목격한 것은 강자의 폭력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약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이 자기 파괴행위, 즉 죽음뿐이라는 충격적 경험을 겪도록 만든다.

성장기의 바이올렛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겪은 두 번의 끔찍한 경험은 아버지 디어(Dear)의 귀향 선물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다. 디어는 사회 재건설당(Readjuster Party)의 멤버로 활동하며 가재도구까지 재산을 모두 날리고 떠난 뒤 로즈의 사망 후 2년 뒤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디어의 귀향은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어머니가 당한 폭력과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바이올렛에게 감동적인 귀향이 아니다. 성장기의 바이올렛이 겪은 트라우마 경험은 너무나 끔찍하다. 따라서 이런 경험은 일시적인 감동을 주는 선물 공세에 의해 지워지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레노어 테르(Lenore Terr)가 폭력을 직접 목격했을 때의 트라우마에 대해 “심각한 정신장애를 초래한다”(11)고 밝히듯,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의 바이올렛에게 이 같은 경험은 그녀의 의식적 조율을 방해하고, 그로 인한 불균형을 성인이 되어서도 해소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를 말해주듯, 바이올릿은 훗날 결혼하여 자녀들에게 굶주림과 동냥을 강요하는 어머니가 되느니 차라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결심하고, 경제적 빈곤을 해소한 뒤에도 이 같은 결심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바이올릿은 트루벨의 노예생활 이야기로부터 벗어난 시점은 17세 때이다. 청소년기를 맞이한 바이올릿은 트루벨의 권유로 팔레스틴 목화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시작함으로써 트루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한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다. 바이올릿은 목화밭 일에 적응하지 못한 채 트루벨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때 바이올릿의 귀가를 막은 사람이 바로 19세의 아프리카계 청년 조이다. 목화밭의 동료 노동자인 조는 목화밭을 떠나려 한 바이올릿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도록 만든다. 즉 바이올릿은 조와의 교제를 시작으로 트루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계기를 마련하고, 13년 동안의 교제 이후 결혼에 골인함으로써 트루벨 없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바이올릿은 남부 농촌지역인 버지니아(Virginia)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흑인 대이동의 대열에 참여하여 북부도시인 뉴욕의 할렘으로 이주한다. 조와 함께 할렘으로 이주한 이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공공적 권리, 지원,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바이올릿과 조에게 버지니아는 아프리카계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형제애를 경험하게 해준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과의 격리, 노동력 착취, 정부의 열악한 임금, 그리고 토지와 집 소유주들의 횡포 등 백인사회의 불의와 기만을 환기시켜 주는 공간이다(Kim Sook-he 131). 따라서 그들은 기존의 삶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화려하고 유혹적인 할렘으로 이주하지만, 할렘 역시 고독하고 무미건조한 공간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바이올릿이 조와의 결혼생활에서 이처럼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인종적 불평등과 연계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와 결혼한 뒤에도 트루벨이 남긴 골든 그레이 유산을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바이올릿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유년시절의 공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조(Carolyn 484)와 사랑의 대화와 공감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 다름 아닌, 골든 그레이의 환영으로 가득 채워진 바이올릿의 마음속에는 조를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 바이올릿은 골든 그레이의 환영에 지배당한 채 골든 그레이를 오빠 또는 남자친구와 같

은 이상적인 남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바이올렛이 흑인 여성으로서 자신을 되찾기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의식에서 골든 그레이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런 비움의 과정이 없다면, 바이올렛은 조와의 사이에 어떠한 사랑의 공감대도 쌓아갈 수 없다.

골든 그레이의 환영 속에 매몰된 바이올렛은 조와의 결혼생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침묵 속에 빠트린다. 바이올렛은 앵무새와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을 뿐 남편의 ‘사랑해’라는 말에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여성이다(Kim Min-jung 485). 뿐만 아니라, 바이올렛은 조의 외도를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적으로부터 조를 지키기 위해 폭력도 불사할 만큼 저항적이고 전복적인 흑인 여성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조가 원하는 여성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까닭에, 바이올렛은 조의 마음을 도르카스에게 빼앗긴 이유와 관련하여 도르카스가 자신보다 더 젊고 더 하얀 피부색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조를 유혹할 엉덩이를 되살리기 위해 탄산수를 마시는 등 실효성 없는 계획만 세우고, 실천에 옮긴다(Cannon 241).

바이올렛이 골든 그레이의 환영에서 벗어난 시점은 도르카스의 장례식에서 느닷없이 칼을 들고 나타나 관 속의 도르카스를 향해 폭력을 행사했을 때이다. 이때 바이올렛은 조의 외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종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바이올렛의 이 같은 모습은 수동적 침묵에서 벗어나 의식적·행동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모습 그 자체이다. 이와 관련, 김민정이 바이올렛의 폭력에 대해 “남편을 유혹한 연적에 대한 질투심”(236)이라고 밝히며, “도르카스가 되어 조의 주의를 붙잡고 싶은 ‘나’를 살해하는 것” 그리고 “가부장적 대상에 대한 형이상학적 공격”(236)이라고 해석하듯, 바이올렛은 장례식 폭력을 통해 남편의 외도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남편의 마음을 흠친 연적에 대해 질투하고 징벌하는 흑인 여성으로 탈바꿈했음을 보여준다.

바이올렛은 장례식 폭력 이후 엘리스와의 첫 만남을 통해 폭력적 · 파괴적 이미지를 평화로운 이미지로 바뀌가며 공포와 불안을 평화로, 갈등을 화해로, 그리고 대립을 조화로 치환한다. 이 만남에서, 바이올렛은 엘리스를 긴장하도록 할 만큼 아무 말 없이 벽에 걸린 은색 사진틀 속 도르카스를 응시한다. 그리고 엘리스가 지루한 느낌을 가질 무렵, 바이올렛은 사진에서 시선을 돌리며 “저는 당신

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Jazz 80)라고 말한다. 바이올렛의 이 같은 모습은 이 소설의 서두에서 보여준 도르카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르카스에 대한 질투와 분노와 적대감을 포용과 화해와 공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모습이다. 이를 말해주듯, 바이올렛은 사진 속 도르카스의 머릿결을 미용사로서의 직업적 관심과 미적 감각에 비취 찬미하는 한편, 머리카락을 조금 더 짧게 잘랐을 경우에 느껴지는 도르카스의 단정한 모습을 상상한다.

바이올렛과 엘리스의 첫 만남이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두 번째 만남은 두 사람 사이의 골을 메꾸어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만남에서 엘리스가 바이올렛의 끝이 낡은 외투 소매를 꿰매어주는 행위는 바이올렛에 대한 긴장감과 공포심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임과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불신과 오해의 상처를 봉합하려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 엘리스는 이후 두 차례 더 이어지는 바이올렛과의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는 물론 엘리스의 개인적 성장과 반성, 그리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 번째 방문에서 바이올렛과 엘리스는 훨씬 더 진전된 관계를 보여준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처럼 진전된 관계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주된 이유는 연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답형식의 대화에 나타난 상호공감대에서 찾을 수 있다. 엘리스가 먼저 바이올렛에게 도르카스의 시신을 향해 칼을 휘두른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바이올렛은 대답 대신 “당신은 남자 때문에 싸우지 않나요?”(Jazz 86)라고 반문한다. 바이올렛의 이 같은 반문은 남편의 외도에 대해 ‘무장하지 않은 여성’처럼 침묵으로 일관한 엘리스에게 지난날의 침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늦었지만 자신의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을 때 질투하고 분노할 수 있는 여성으로의 탈바꿈을 요구하는 반문이다. 이와 관련, 대화 중에도 멈추지 않는 엘리스의 다림질은 외도한 남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바이올렛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행위, 바이올렛에 대한 감정의 골을 펴기 위한 행위, 그리고 바이올렛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이다.

네 번째 마지막 방문은 바이올렛이 도르카스 찾기에서 자기 자신 찾기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바이올렛은 첫 방문 때 가져간 도르카스 사진을 엘리스에게 되돌려준다. 바이올렛의 이 같은 행위는 도르카스를 응시하며 타자에 대한 질투와

대립은 물론 화해와 공감대의 모색조차 지나간 일이 되었음을 밝혀주는 행위이다. 즉 바이올린은 엉덩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남자들의 동성적인 눈을 의식하여 따뜻한 날에도 외투를 입고 다니지만, 지난날의 흔적을 벗어 던진 평화로운 모습이다. 이 만남에서, 바이올린은 엘리스를 향해 도시의 선정적 분위기와 매춘행위와 투쟁이 하는 여성에 대해 말하지만, 엘리스는 대꾸 없이 다림질만 이어간다. 이때 엘리스의 침묵을 깬 것은 다리미의 열기에 의해 옷이 타는 냄새다. 심각해야 할 이 상황에서, 바이올린이 먼저 웃었고, 이어 엘리스도 웃는다. 즉 두 사람의 이 같은 웃음은 그간의 만남에서 보여준 성찰과 반성, 그리고 공포와 불안의 해소를 엿보게 해주는 웃음이다.

네 번에 걸친 엘리스와의 만남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일궈낸 후 도르카스의 친구 펠리스(Felice)가 방문했을 때, 바이올린은 자아 성찰과 복원을 이뤄가는 모습이다. 다른 아닌, “내 인생, 내 것을 잃은 거야. 또 다른 누구, 백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Jazz 210)라고 말하듯, 바이올린은 트루벨의 영향력 속에서 백인성의 무조건적 추종을 내면화한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하며 이로부터 벗어난 현재의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와 관련, 바이올린은 도르카스에 대한 분노는 물론 그녀를 알고 싶어 하는 욕망도 버렸다고 밝히며, 펠리스가 어떻게 버렸느냐고 묻자 “그녀를 죽였어, 다음에 그녀를 죽인 나를 죽였어”(Jazz 211)라고 대답한다. 즉 바이올린의 이 같은 언급은 그녀가 도르카스와 엘리스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와 내면적 상처의 원인을 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줌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강한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혀준다.

기타 어머니로서 트루벨의 일방적 자녀 양육방식은 엘리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엘리스는 인종적·성적 폭력에 노출된 아프리카계 여성들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Carolyn 485), 도르카스의 양육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도르카스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주의 사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장하지 않은 여성’과 다름없는 엘리스의 그릇된 훈육 속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도르카스는 흑인 대이동 시기에 발생한 시카고(Chicago) 흑인 저항운동의 혼란 속에서 부모를 모두 잃은 채 백인 가정의 가정부였던 엘리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이와 관련 작중 화자가 “그녀는(=앨리스) 소녀(=도르카스)에게 장님이 되고 병어리가 되라고 가르쳤다”(Jazz 54)고 밝히듯, 백인 가정의 가정부 출신인 앨리스는 침묵과 복종을 내면화한 여성으로, 자신의 이 같은 여성성을 조카인 도르카스에게 강요한다. 즉 그녀는 도르카스에게 백인 중심사회의 인종적·성적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도록 훈육하는 대신, 순응하고 침묵하도록 훈육한다. 이로 인해, 도르카스는 자율적·능동적 흑인 여성으로의 성장기회를 상실한 채 감금과 억압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성장과정을 겪어야 한다.

앨리스의 침묵과 복종은 노예제도 시절뿐만 아니라 노예해방 이후에도 지속된 백인 남성 중심사회의 인종적·성적 억압과 폭력의 역사를 말해준다. 노예제도 시절의 아프리카계 여성들은 인간적 범주 밖의 다목적 노동력과 노예 재생산자(Terborg-Penn 35)이며, 노예해방 직후 남부의 아프리카계 여성들은 남성 중심사회의 혼전 성경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Collins 160), 20세기 초 남부와 북부의 소도시와 대도시로 이주한 아프리카계 여성들은 가정부로 취업하여 가사노동과 양육이란 이중적 의무를 강요당한다(Collins 161). 즉 아프리카계 여성들은 노예제도 시절에 이어 이 소설의 작중 배경 20세기 초까지도 흑인 여성으로의 자율적·능동적 정체성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침묵과 복종을 강요당한다.

앨리스는 1920년대, 즉 “도시의 음악, ‘이리 와요, 이리 와서 나쁜 일 좀 해요’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 그 음악”(67)을 거부하며 자신을 고립시킬 뿐, 음악에 노출된 도르카스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고민과 해법 찾기를 시도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성이다. 이런 까닭에, 작중 화자가 “자기방식으로 키우려고 온갖 애를 썼다”(Jazz 67)고 밝히듯, 앨리스는 주변의 할머니들처럼 그 음악을 거부하며 10대 중반인 도르카스에게도 자신처럼 거부하도록 강요한다. 즉 앨리스는 도시의 유흥으로부터 도르카스를 분리하기 위해 침묵과 인내로 쌓아 올린 자신의 수동적·배타적·자기중심적 성곽 안에 가둬두려 한다.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자율을 허용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청소년을 두 대조적인 인간형, 즉 저항적 인간과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Watson & Protinsky 288). 따라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자기 지향성과 내적 조절을 중요시하는 가족 체계와 자율적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다름 아닌, 자율성이 주어진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자율성은 청소년에게 정체성과 관련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 이 경우, 청소년이 정체성 탐구로부터 얻는 정보는 인격적 정체성의 집대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자율성은 청소년에게 동료들과의 집단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경우, 동료집단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Watson & Protinsky 288).

하지만 엘리스의 일방적 통제는 도르카스의 자율적인 여성성 형성을 방해한다. 엘리스가 도르카스에게 씌운 통제 수단은 가족의 관계성을 경직된 방향으로 몰고 감으로써 흑인 여성성을 습득하여 내면화할 성장기 청소년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즉 엘리스의 통제는 가족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도르카스를 설득하지 못했으며, 도르카스를 도시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저항심을 유발하여 도시의 유혹 속으로 달려가도록 만든다. 작중 화자가 “도르카스의 목에 씌어 놓은 멍에는 점차 닳고 닳아서 마침내 부서지게 되었다”(Jazz 68)고 밝히듯, 모리슨은 엘리스의 훈육방식에 대해 ‘실패했다’는 부정적 결론을 내린다.

도르카스는 엘리스의 실패한 훈육방식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침식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며 저항한다. 즉 도르카스는 지난날 세인트 루이스(St. Louis)에서 기차의 차창 밖으로 시위행렬을 바라보는 동안 시위대의 북소리와 함께 솟아오르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엘리스의 손에 잡혀 꺾꽂이 놀러 참아낼 때 “배꼽 아래 어딘가에 자리 잡은”(Jazz 60) 트라우마적 경험, 즉 흑인시위로 인해 살던 집이 화염에 싸일 때의 불덩이가 되살아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청소년기의 부자연스러운 현실에서의 일탈을 꿈꾼다. 하지만 도르카스의 이 같은 모습은 새장에 갇혀 비행연습을 하지 못한 채 창공을 향해 비행을 꿈꾸는 새의 모습과 다름없다. 도시의 유혹을 향해 엘리스의 판옵티콘 밖으로 뛰쳐나간 도르카스의 꿈은 걸음장치 또는 방어기제는 물론, 필요할 때 공격할 의지도 없이 일탈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 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르카스가 화장품 방문판매원인 50대 남성 조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조는 박하사탕에 의지하여 고립감을 달래는 도르카스를 방문하고, 박하사탕이 “뺨을 제외하면, 달콤하고 부드럽게 빛나는 그녀의 피부를 망쳐놓으면 어쩌나 걱정을 해준다”(Jazz

69). 엘리스의 엄격한 통제와 대조를 이루는 조의 이 같은 모습은 10대 소녀 도르카스에게 일탈의 탈출구를 제공하는 한편, 박하사탕의 단맛 대신 화장품의 달콤한 향기에 유혹되어 방만한 자유를 즐기도록 만든다.

엘리스의 훈육과 도르카스의 선택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가정과 모녀 관계의 역사적 환경을 상기시켜준다. 인권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손한 마스크를 강요했다”(Franklin 88). 다른 아닌, 아프리카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격성, 경쟁성, 그리고 지배력은 너무 위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제하도록 교육시켰다(Franklin 89). 아프리카계 부모들 대다수의 이 같은 훈육방식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다수 집단의 요구와 제도에 성공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해 주류사회의 기준과 가치에 맞도록 사회화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물론, 아프리카계 부모들은 열악한 사회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맞춤형 훈육뿐만 아니라 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훈육도 병행한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부모들의 훈육은 자녀들의 탈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프리카계 부모들의 이 같은 자녀훈육 방식과 실패는 아프리카계 어머니들이 딸들을 훈육할 때도 반복되었다.

아프리카계 어머니들은 독립적·자의적인 딸로 키우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애적·양육적인 딸로 커가기를 원한다(Scott 167). 이 과정에서 지배적·통제적인 유럽 중심적 문화와 사회에 종속된 아프리카계 어머니들은 딸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쌓아갔고, 해결책 없이 딸을 혼전임신과 같은 일탈로 내몰았다(Scott 168). 이와 관련, 엘리스의 자녀 양육방식과 도르카스의 일탈은 아프리카계 부모들과 자녀들, 그리고 아프리카계 어머니들과 딸의 훈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긴장과 갈등, 그리고 훈육의 실패와 일탈을 상기시켜준다.

엘리스의 훈육 실패로 인해 시작된 도르카스의 일탈은 조에 이어 액튼(Acton)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이 관계는 도르카스가 액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액튼이 도르카스를 노리개로 선택한 것이다. 액튼은 도르카스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클럽을 출입하며 즐기기 위해 선택한다. 액튼은 조와 달리 도르카스에게 어떤 선물도 주지 않는다. 도르카스는 액튼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지만, 액튼은 불평을 늘어놓는다. 도르카스는 이런 액튼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조와 엘리스를 유혹하여 얻은 돈으로 싸구려를 싫어하는 액튼에게 선물 공세를 한다. 또한 선물

공세를 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 도르카스는 액튼을 위해 모든 것을 낭비하고, 액튼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도르카스의 이 같은 수동적·의존적·피상적 자이는 결국 조의 폭력을 부르고, 조에 의해 살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가 도르카스를 살해한 시점은 도르카스가 액튼의 노리개가 되어 도시의 환락을 즐기고 다닐 때이다. 이와 관련, 조의 살해행위는 액튼의 노리개가 되어버린 도르카스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기 위한 복수극이 아니다. 살해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펠리스가 조에게 도르카스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야”(Jazz 213)라는 조의 대답은 그의 살해행위를 ‘엉겁결에’ 또는 ‘즉흥적인’이란 비의도적·비계획적 뉴앙스로 포장하는 듯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도르카스가 액튼에게로 떠나버렸을 때 ‘도르카스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르카스를 살해했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 엘리자베스 캐논(Elizabeth Cannon)이 조의 살해이유에 대해 “도르카스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서”(247)라고 해석하듯, 조는 도르카스를 영원한 자신의 연인으로 간직하기 위해 ‘죽음’이란 불변의 탈시간적 세계 속에 그녀를 머물게 하고 싶어했다. 이와 관련, 조의 살해행위는 로맨스적 폭력이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남성 중심적 폭력행위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말해주듯, 모리슨은 도르카스를 살해한 이후 도르카스의 부재 하에서 조의 욕망이 잠정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장면을 추적한다. 펠리스와의 대화에서, 펠리스가 조에게 “당신 때문에 그녀가 죽었어요. ... 당신은 살인자예요”(Jazz 212)라고 말했을 때, 조는 “내가 죽었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Jazz 212)라고 답변한다. 조의 이 같은 답변은 이 대화에 앞서 펠리스가 본 조의 모습, 즉 “창문 옆에 앉아서 아무 말이 없이 골목길을 응시”(Jazz 206)하며,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골목길 끝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의 모습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도르카스의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임과 동시에, 인종차별주의에 의한 희생이다. 펠리스가 “도르카스는 스스로 죽었어요 ... 냉정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메마른 눈이었어요. 나는 그녀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Jazz 209)라고 증언하듯, 그녀는 앨리스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앰블런스도 경찰도 누구도 부르지 말라”(Jazz 209)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리스가 살해사건 다음 날 아침까지 두 번이나 더 전화한 끝에 앰블런스가 뒤늦게 나타난 것은 인종차별 사회의 횡포와 도르카스의 죽음 사이에 놓인 상관관계를 말해준다. 펠리스가 “빙판길 때문이 아니라 유색인종이 전화했기 때문”(Jazz 210)이라고 말하듯, 앰블런스가 늦게 도착하여 도르카스를 과다출혈로 인해 숨지게 만든 것은 유색인종의 인권을 경시해온 백인 중심사회의 인종차별주의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III. 맺음말

이 소설에서 트루벨과 엘리스는 ‘무장하지 않은 여성’과 다름없는 여성들로, 노예제도와 노예제도의 그림자를 드리운 인종차별주의 사회가 강요한 규범과 폭력에 도전하기보다, 침묵과 순응을 미덕으로 이를 내재화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트루벨과 엘리스는 자신들의 인종적·성적 가치관과 대응방식을 위탁받은 성장기의 자녀들 바이올릿과 도르카스에 훈육에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손녀들이 자율적·능동적 흑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친다.

트루벨은 인종적 정체성과 여성성을 강조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저항적·전복적 정서와 의식에 반하는 여성이다. 모리슨은 이 같은 트루벨을 성장기의 엘리스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형상화한다. 즉 트루벨은 백인 주인의 충실한 가정부로서 살아온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긍지를 가진 아프리카계 여성으로, 자신의 가정부 생활을 백인 중심사회의 강요가 아닌 백인 주인의 선택을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백인 중심사회의 차별과 억압을 은혜로 인식하는 트루벨의 이 같은 의식은 그녀의 인종적 정체성이 무장한 아프리카계 여성 또는 어머니의 흑인 여성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해준다.

백인주인의 가정부로서 트루벨의 긍지는 성장기의 바이올릿에게 백인 어머니의 아들로 양육된 골든 그레이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한편, 흑인 여성적 자아와의 단절과 자아 이미지의 불안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 모리슨은 바이올릿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이올릿과 조의 무미건조한 결혼생활, 그리고 조의 외에도

대한 바이올렛의 수동적 대응을 통해 밝힌다. 바이올렛은 조와의 결혼생활 대부분을 골든 그레이의 환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골든 그레이의 환영과 함께 선택한 미용사로서의 직업적 전문성과 함께, 그녀가 추구하는 성적·미적 아름다움은 그레이의 환영을 재현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조의 외도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바이올렛은 조의 외도를 자신보다 피부색이 더 하얗고 젊은 여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Cannon 239). 바이올렛의 이 같은 판단과 태도는 트루벨로부터 대물림한 백인 남성 중심적 미적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녀의 폐쇄적 실존을 말해준다.

모리슨은 기타 어머니로서 트루벨의 실패를 엘리스의 경우를 통해 재현한다. 하지만 모리슨이 엘리스의 자녀교육을 통해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는 이슈는 백인 같은 흑인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트루벨의 사례와 달리 아프리카계 미국여성들의 성적 희생에 대한 트라우마적 경험이다(Carolyn 485). 즉 엘리스는 아프리카계 여성들에 대한 백인 남성사회의 무차별 폭력을 목격한 자신의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기의 도르카스를 자신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엘리스의 훈육방식은 할렘 르네상스를 통해 자율성과 정치성이 강화된 흑인 여성성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훈육방식이다.

엘리스는 인종적·성적 차별주의자들의 억압과 폭력을 무저항과 침묵으로 내면화하며, 자유 방만한 도시의 유혹을 회피와 고립이란 수동적 형식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엘리스는 이 같은 자신의 신념을 어린 도르카스에게 주입하며 무조건 따라주기를 바라지만, 헛된 기대로 끝이 난다. 성장기의 아프리카계 소녀들은 “인종적·성적 차별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기획된 정보를 일차적으로 아프리카계 공동체에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밖의 인종적·성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서 성차별주의와 싸워야 한다”(Franklin 251). 하지만 엘리스의 폐쇄적 훈육방식은 성장기의 도르카스에게 반인종차별주의적 흑인 여성성을 학습할 정보는 물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다. ‘가정’이란 소단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엘리스의 훈육은 도르카스의 성장과정을 고립화하여 흑인 여성성의 형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리 진 플라허티, 로나 팩트 그리고 패트리샤 가버(Mary Jean Flaherty, Lorna Facteau, and Patricia

Garver)가 “조부모들은 20세기 말 변화하는 흑인 가정을 묘사하는 문헌에서 비판적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다”(223)고 밝히듯, 엘리스도 이러한 조부모들 중 하나이다. 즉 엘리스는 도르카스에게 억압체제에 순응하는 교육과 억압체제를 회피하기 위한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집 밖의 외부적 충격과 유혹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자율적·자립적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모리슨은 1920년대 작중인물인 도르카스의 미성숙한 자아를 통해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성장기 아프리카계 자녀들의 고단한 현실을 추적한다. 경제적 침체기인 이 시기에, 대다수 아프리카계 자녀들은 성장기에 겪은 부정적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적 부적격자, 즉 생리학적 신경학적 결핍자로 취급받으며”(Franklin 249) 사회에 진출한다. 모리슨은 아프리카계 자녀들의 이 같은 성장기를 환기시켜 주는 도르카스의 순응적·타율적·의존적 성장기를 시공간적 범주를 초월한 아프리카계 자녀들의 보편적 문제로 간주하며, 도르카스를 남성들의 성적 유희 대상에 이어, 죽음의 안식조차도 침해당하는 여성으로 재현했다.

Works Cited

- Andrews, Jennifer. “Reading Toni Morrison’s *Jazz*: Rewriting the Tell Tale and Playing with the Trickster in the White American and African-American Humour Traditions.” *Canadi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29.1 (1999): 87-107. Print.
- Cannon, Elizabeth. “Following the Traces of Female Desire in Toni Morrison’s *Jazz*.” *African American Review* 31.2 (1997): 235-47. Print.
- Carolyn. Jones. “Traces and Cracks: Identity and Narrative in Toni Morrison’s *Jazz*.” *African American Review* 31.3 (1997): 481-95. Print.
- Collins, Patricia. “The Meaning of Motherhood in Black Culture.” *The Black Family Essays and Studies*. Ed. Roberts Stapl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157-66. Print.
- Flaherty, Mary Jean, Facticeau, Lorna, and Garver, Patricia. “Grandmother Functions in Multigenerational Families: An Exploratory Study of Black Adolescent Mothers and Their Infants. *The Black Family Essays and Studies*. Ed. Roberts Stapl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223-31. Print.

- Franklin, Clyde, and Pillow, Walter. "Single and Married: The Black Male's Acceptance of the Prince Charming Ideal." *The Black Family Essays and Studies*. Ed. Roberts Stapl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87-93. Print.
- Gallego, Mar. "Sexuality and Healing in the African Diaspora: A Transnational Approach to Toni Morrison and Gypsi." *Humanities* 8.4 (2019): 183-94. Print.
- Genovese, Eugene. "The Myth of the Absent Family." *The Black Family Essays and Studies*. Ed. Roberts Stapl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25-31. Print.
- Gibson, Priscilla. "Caregiving Role Affects Family Relationships of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as New Mothers Again: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8.3 (2002): 341-53.
- Hebling, Mark. *The Harlem Renaissance*. Trans. Lee Kyeong Sik. Seoul: U.S Embassy in the Republic of Korea, 2007. Print.
[마크 헬블링. 『할렘 르네상스』. 이경식 역.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2007.]
- Hughes, Langston. *Collected Poems*. New York: Vintage Books, 1994. Print.
- Kim, Min-jung. "Working with 'Public Crazyiness' and 'Private Cracks': Toni Morrison's *Jazz*." *Studies in Modern Fiction* 17.1 (2010): 167-202. Print.
- Kim, Sook-he. "The Musical Composition of African American Narrative: Toni Morrison's *Jazz*."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9 (2018): 125-40. Print.
- Kivett, V. R. "Racial Comparison of the Grandmother Role: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Support System of Older Black Women." *Family Relations* 42.2 (1988): 165-72. Print.
- Morgan, Kathleen. "The Homeric Cyclops Episode and "Otherness" in Toni Morrison's *Jazz*." *Classical and Modern Literature: A Quarterly* 18.3 (1998): 219-29. Print.
- Morrison, Toni. *Jazz*. London: Picador, 1993. Print.
- Peterson, Nancy. "'Say Make Me, Remake Me': Toni Morrison and the Reconstruction of African American History." Ed. Nancy Peterson. *Toni Morrison and Theoretical Approaches*. Baltimore: John Hopkins UP, 1997. 201-22.
- Putman, Amanda. "Mothering Violence: Ferocious Female Resistance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Sula, Beloved* and *A Mercy*." *Black Woman* 5.2 (2011): 25-43. Print.
- Rahmani, Ayda. "Black Feminism: What Women of Color Went Through In Toni Morrison's Selected Novel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and English Literature* 4.3 (2015): 61-65. Print.
- Salem, Zimmerman, and Notaro, P. C. "Effec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Father Involvement on Psychosocial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7.4 (1998): 331-41. Print.

- Scott, Joseph, and Black, Albert. "African-American Daughter-Mother Relations and Teenage Pregnancy: Two Faces of Premartial Teenage Pregnancy." Ed. Roberts Stapl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167-78. Print.
- Staples, Roberts. ed. *The Black Family Essays and Studi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Print.
- _____.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Black Family Transformation: Toward of Family Functions." Ed. Roberts Stapl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18-24. Print.
- Terborg-Penn, Rosalyn. "Women and Slavery in the African Diaspora: A Cross-Cultural Approach to Historical Analysis." Ed. Roberts Stapl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32-38. Print.
- Terr, Lenore.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1 (1991): 10-20. Print.
- Watson, Marlene, and Protinsky, Howard. "Black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ucture." *Family Relations* 37.3 (1988): 288-92. Print.

이영철 (전주대학교 / 교수)

주소: (412-090)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18. 동산마을 호반 베르디움 2103동 1502호

이메일: lych07@hanmail.net

논문접수일: 2024. 01. 05. / 심사완료일: 2024. 01. 31. / 게재확정일: 2024. 02. 15.